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보다 수준높은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

모든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온전한 천국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삼은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보다 수준높은 교회학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부를 신설하는 한편 교사 연합기도회를 가지기로 했다.

교사양성부 개강

오늘 III부 예배 후 5층 예배실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 교육의 장이 될 교사양성부가 오늘 3시 30분에 5층 예배실에서 개강한다. 교회학교 교사 지원자 및 '93, '94 신입교사를 대상으로 총 10주간동안 계속될 제 1기 교사양성부의 교육내용과 강사,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교육내용

주	실시일	내용	강사
개강	3월 6일	개강예배	이종윤 목사
1주	3월 6일	신약개설 I	임진태 목사
2주	3월 13일	신약개설 II	임진태 목사
3주	3월 20일	구약개설 I	장용휘 목사
4주	3월 27일	구약개설 II	장용휘 목사
5주	4월 3일	웨스터민스터소요리문답	원필현 목사
6주	4월 10일	성경적 교사상	권상석 목사
7주	4월 17일	공과작성 및 교수법	김재호 목사
8주	4월 24일	효과적인 반목회 운영	최병호 목사
9주	5월 1일	교회교육과 발달심리	김주아 전도사
10주	5월 8일	교육상담 이론과 실제	심상권 목사

▶ 교육시간 주일 오후 3시 30분 ~ 4시 30분 (60분간)

고등부

고3을 위한 기도결연예배

다음 주일 오전 11시

고등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기도로 후원하기 위한 기도결연예배를 다음 주일(13일) 11시 2층 고등부 예배실에서 갖는다. 학생 한 명마다 한 분의 장로, 권사 혹은 교사가 짝이 되어 바른 목표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1년동안 기도로 후원하기를 다짐하는 예배이다.

교사연합기도회

매월 첫 주 금요기도회에

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하며 교사간의 진정한 연합과 맡겨 주신 양무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매월 첫 주 금요기도회 시간에 가지기로 하고 지난 4일(금)에 첫번째 교사연합기도회를 가졌다.

학원선교회 창립총회

오늘 III부 예배 후 3층 고등부 교사실에서

학원과 청소년복음화를 위한 학원선교회의 창립총회를 오늘 오후 3시 30분 3층 고등부 교사실에서 가진다. 청소년 선교, 학교생활의 상담과 지도, 미래 지도자를 위한 기독교 교육, 기독교학생 활동 지원과 봉사, 크리스찬 교육자 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학원선교회는 각급학교 전·현직 교사와 교수 및 학원 관계 종사자들과 학원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복음 만민이 들도록

제1기 70인 전도단원과
기도 후원자들은
지난 주일 찬양예배에
결단식을 갖고
10주간의 행진을 시작했다.

새가족 환영회

- ▶ 때 / 1994년 3월 10일(목) 오후 7시 (6시 30분 부터 찬양하며 교제)
- ▶ 곳 / 2층 새가족부실
- ▶ 참석대상 / 12월 11일 이후 우리 교회에 등록된 새신자와 인도자, 교역자, 교구장, 지역장, 다락방장
- ▶ 주요 프로그램 / 찬양의 시간, 특별간증(새가족 중에서), 환영사(이종윤 목사), 교구식구와의 만남, 친교

창세기강해



이 중 운 (목사·당회장)

노아의 사적

(창세기 6장 9, 10절)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은 노아의 일대기는 창세기 가운데서 뿐 아니라 구원사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누구의 사적이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이 11번 나타납니다(2:4,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9; 37:2). 그런데 창세기 전장 가운데 6 ~ 9장까지의 긴 부분에 노아의 사적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일백 이십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으로써 신앙인으로서의 강한 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술이 취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인간의 가장 약한 면을 보여준 노아의 사적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출생한 당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므두셀라, 라멕이 살고 있었고 노아는 그들로부터 신앙적, 영적인 유산을 받았 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므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것처럼 노아의 이름도 그의 생애의 특성에 대해 중요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이름에는 ‘쉼, 안식, 위안, 위로’의 뜻이 있는데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쉬게 해 주시는 은혜가 인간 사회에 반드시 필요했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는 안위를 주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8절)는 말씀처럼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모든 것에 선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

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 일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 ~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라고 하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하셨다”고 했습니다(롬 5:8). 노아는 이 은혜의 논리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었고,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첫 번째로 기록된 의인이 된 것은 은혜의 첫 열매요, 표현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때부터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의인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14:15)라는 말씀에서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있고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된 증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것처럼, 그 자손 노아도 의인이 되어서 이 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벧후 2:5). 우리들 중에 이 의의 복음을 이 시대에 바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이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로 계명을 지켜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의를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2. 완전한 자

노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받았

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9절). ‘의인’은 내적인 것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면 ‘완전한 자’라는 말에는 외적인 행실이 온전하였음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으로만 의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모든 행실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산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한 노아를 가리켜 성경은 완전한 자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3.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9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드시 심판의 날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은 그 시대에 불경죄,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온전한 자로, 동행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지 못할 때에 죄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되 개인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깨끗하고 빛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평안을 얻는 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고통없는 사람은 없다. 이들 중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어렵고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기의 고통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전자에 속한 이들은 주어진 고통 그 자체보다 훨씬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엔 고통이 반감되는 것을 체험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웬일일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 쉼을 얻도록 기도하자.

• REVIEW •

'94 겨울 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지난 2월 17일에 대학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계속되던 '94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3월 1일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부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로 특별한 영성훈련의 기회가 되었던 이번 계절학교에

참가하고나서의 소감들을 한 곳에 모아 보았다.

소박한 글들 속에서 계절학교의 분위기와 성과들을 읽을 수 있을 것같아

원고를 충실히 신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일과 각 부서 필요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부 서	주 제	일 시	장 소	주 강 사
유치부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자	2월 23일 ~ 24일	유치부실(지하)	구미경 전도사
유년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2월 23일 ~ 25일	유년부실(2층)	김재호 목사
초등부	꿈을 키우는 어린이	2월 24일 ~ 25일	초등부실(4층)	김주아 전도사
중등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2월 24일 ~ 26일	광성훈련원	김재성 목사
고등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2월 24일 ~ 26일	광성훈련원	김재성 목사
대학부	열매맺는 가지	2월 17일 ~ 19일	광림수도원	오성종 목사
청년부	청년의 때, 말씀을 따라 삼가자	2월 28일 ~ 3월 1일	소망수양관	이만열전도사
사랑부	성령이 임하시면	2월 22일	사랑부실(2층)	유수영전도사

REVIEW / '94 겨울 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 부모가 되어 성경학교에 가는 마음 ☞

"행복한 유년기를 위한 선물"

정영라 (유치부 이선영, 진영의 어머니)

그 때엔 딱히 놀러 갈 데도 없고 놀거리도 없었던 때문인지 성경학교를 한다는 벽보가 붙으면 마음부터 설레었고 시작하는 날이면 친구를 부르러 일찍부터 집을 나서던 내 유년시절을 회상하며 두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얼마 전에 평촌으로 이사한 후로 교회에 나가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일곱살, 다섯살 두 아이가 모두 찬양대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일찍 교회에 도착해야 하므로 때론 힘에 겹기도 하다. 그래도 돌아보면, 나의 유년시절은 주일학교 생활로 인해 더욱 아름다웠고 풍성했고 행복했었기에 내가 조금만 정성을 쏟으면 내 아이들이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발길을 옮겼다.

유치부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성경학교 준비로 부산한 눈치였다. 주보를 보니 준비기도회로 여러번 모이고, 유치부실 환경이 매주일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학부모인 나는 꼭 참석해야 한다는 전화를 몇번이나 받았는지 모른다.

성경학교를 위해 강사로 오셔서 단아한 모습으로 정성들여 준비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모습은 내 어린 아이들 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오래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 4장 7절 말씀. 아멘!" 성경학교가 다 끝났는데도 아이들은 종일 그 때 외운 말씀을 재잘대며 논다.

♪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잠자고 기도하고 뛰어 놀면 하나님이 축복해요. ♪

아이들의 재잘거림 속에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시

작했음을 인해 하나님께 한 없는 감사를 드리며, 이모 저모로 수고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해 준 선생님들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기도함으로 빛진 마음을 대신해 본다.



☞ 겨울성경학교에서 배운 말씀 ☞

“기도란? 믿음이란? 전도란?”

고아라(유년부 3학년 사랑 9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난 항상 가슴이 설레이며 두근거린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제목을 놓고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다른 날 보다 일찍 서둘러 교회학교로 향했다.

울동과 찬양 후에 목사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이었다.

1. 기도란 무엇인가?

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즉 구하는 것 ②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즉 이야기 하는 것 ③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 즉 숨쉬는 것이다.

2.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믿음으로 ② 참을성있게 ③ 겸손하게 ③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같은 말씀을 듣고난 뒤 기도를 이처럼 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둘째날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다고 하셨다. 내게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 우리는 모두 다 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②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③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④ 하나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3일만에 살아나셨고 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위의 사실에 각자 수궁이 가는 것에 O표하라 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보 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다. 내 마음이 기뻐다. 위 다섯가지 사실이 다 믿어졌기 때문이다.

셋째날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전하려면 내 자신이 거듭난 생명이어야 한다”하셨다. ① 엄마 몸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②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것이라”는 말씀에 감사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렸다. “하나님 나만이 이 복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3학년 친구들 다 듣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 즉시 믿음으로 기도드렸다.

3일동안 교회 오고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한날 한날에 모든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다.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고 기도 많이 많이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잘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



☞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

“주님과 함께 하니 즐거워요”

김진희(초동부 6학년 4반)

1994년 2월 24일 목요일 맑음

‘꿈을 키우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시작한 우리 초동부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멋지고 즐겁게 보냈다. 특별한 날인 것 같아 설교 말씀을 더 열심히 들었다. 전도사님의 경쾌하고 맑은 목소리에 마음이 막 즐거워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동부에 빈 자리가 없이 꼭 차서 많은 어린이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내일은 두 날개를 달고 오라고 하셨다. 말하자면 양쪽 손에 새 친구의 손을 잡고 오라신 것이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하자고 다짐하면서 서로를 쳐다 보았다.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를 찾아 듣는 ‘선택강의’시간.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 때문인지 열심히 듣고 받아 적는 친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제일 즐거웠던 ‘학습센터’시간. 4개의 센터를 지나면서 달란트를 받는 것인데 다섯번째 센터에 와서는 선생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잡히면 빼앗기는 것이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달란트를 받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달란트 시장에서 과자를 사먹는 것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994년 2월 25일 맑음

한 조를 이룬 대원들끼리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종이에 써서 그 사람에게 주는 ‘인간관계훈련’ 시간.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안고 우리는 한사람 한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써 내려갔다. 모두들 만족했는지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었다.

‘감사와 결단의 시간.’ 우리는 “한개만 더 주세요.”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보았다. 어떤 아이가 아픈 친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한개씩 더 언어간 내용의 슬라이드를 보며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용기있는 마음을 배웠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했다.



겨울수련회에 참가하고서

“한걸음 더 가까이”

강한나 (중등부 3학년)

이번 수련회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지난 수련회 때마다 불편했던 기억만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기기운으로 몸도 편치 못했다. 그러나 떠밀리듯 수련회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썩 내키지 않던 마음이 차창 밖으로 펼쳐진 자연들을 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수련회장을 생각지 못하던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이었고 날씨도 너무 화창하여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강단에 붙어 있는 주제성구를 보며 ‘과연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무언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부흥회 시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나 주님을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고 습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한 것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회개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 있었다.

둘째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신앙에 찬양선교단」과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에 대한 나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 반성하였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내뱉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조건적 상황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조금 어색했지만 조별발표회 시간에 사랑을 나누고 하나되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

주님의 자녀다운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생각해본 특강시간들도 유익한 것이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문화가 많이 오염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처음 마음과는 달리 즐겁고도 편안하고 평안한 가운데 3일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버렸으나 내 믿음은 한발짝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

“우리를 위해 여러모로 힘써 주신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한 후의 간구

“주님, 이 손을 꼭잡고 가소서”

유인옥 (고등부 2학년)

어쩌면 이번 수련회는 내가 고등부에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이라도 하기 위해서 나섰는지도 모르겠다. 자꾸만 내 모습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내 자신이 외로와져서 작은 일에도 힘겨움을 느꼈다. 누군가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

「번제의 밤」, 난 마치 예수님을 모시고도 깨어있지 못하던 제자들처럼 즐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갑자기 내 손을 쥐시고 기도를 시작하셨다. 평소 친밀하지 못했던 분이었는데도 정신이 들면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찾아오고, 관계가 좋지 못했던 친구들이 화해를 청해왔고... 목사님께서도 격려하는 기도를 해주셨다. 문득 내 손을 잡으신 분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바로 예수님이셨다. 주님은 항상 내 손을 잡고 계셨다. 그런데 난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 왜 내가 외롭다는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주님의 대한 열심도,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모두 부족한 나를 보며 안타까와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셨을 것이다. 부끄러운 내 모습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주님을 생각하니 내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져 얼굴에 범벅이 되었다.

새로운 결심을 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자!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 생겼다. 주님도 아마 마찬가지 이시겠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 힘과 결심 약하니 저의 손 꼭 붙들어 주소서.”



“저희에게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중등부에는 선생님이 안 계신 반이 다섯반이나 됩니다. 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세요.

☞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 ☞

"십자가 믿으면 천국가요"

채항석 (사랑부 교사)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한 학생씩 데려와야 하기에 겨울성경학교 시작이 이미 조금 넘어선 시각에야 마음 졸이며 교회당에 들어설 수 있었다. 몸이 불편하고 부자유한 학생들이 모인 사랑부도 육신의 치료와 영혼의 치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열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 찬송과 율동, 공작시간, 연극 순서... 어느 하나 기쁘고 즐겁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히 선생님께서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은 감사하며 기뻐했고, 한명씩 나와서 그것을 다시 자기 말로 고백할 때,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견고히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금색 페이지를 펼치며)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어요. (흰색 페이지를 펼치며) 천국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검은색 페이지를 펼치며)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 마음이 까맣게 되었어요. (빨간색 페이지를 펼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다시 황금색 페이지를 열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간증이요, 찬양의 내용이다.



오늘을 사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과거 그 어느 시대의 청소년보다도 막중한 사명을 가진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

적 변화의 구도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범주를 훨씬 초월하여 종래까지의 민족관념이나 국가간 지탱해 온 기존질서가 무너지고, 신질서가 형성되는 엄청난 변화가 닥쳐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여러분들의 역할범주는 단순한 감성적 차원으로 국내 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로 변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를 주축으로하는 작금의 세계 환경변화는 남북통일과 더불어 맥스싱거가 말한 21세기의 부국순위 2위의 시대가 과연 한반도에서 이뤄질 것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풀케네의 말처럼 서구의 몰락은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 토인비와 같은 사학자나 인도의 타골이 말한 한반도의 예찬은 과연 21세기에 이뤄질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기대들이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단순한 의미의 희망과 야심과 도전의 혼합이요, 아직은 추측일테지만 그럼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공산권의 몰락이나 G7에 도전하는 96년 무역 총규모 5천억 불시대를 예고하는 현실을 볼 때 단순히 허황된 것만은 아니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의 선진화 경향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요 세계적 상황변화의 과정이 한반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정도로 생각

☞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주는 글 ☞

"미래 세계는 여러분의 어깨에!"

이영열 (장로·베들레헴 찬양대장)

☞ 교회학교교사의 기도 ☞

한 아이와 내가 손을 맞잡고

귀하신 주님,
저는
어떤 고귀한 명이나 기적적인 임무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일 중에 일부를 제게 주셔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거저 제 손에 질 수 있는 작은 손을 주소서
저 낮은 소릿길 너머로
당신께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작은 아이를 주소서.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잔잔한 목소리를 주소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볼
두개의 빛나는 눈동자를 주소서.



귀하신 주님,
제가 쓰기 원하는 유일한 관(冠)이 있다면
작은 아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지식이 많은 자나 지체가 높은 자,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자들 틈에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구하는 것은
따뜻하게 손에 손 맞잡고
아이와 제가
당신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간으로 최대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오만한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쌓았던 공산권이 왜 오늘 저 지경이 되었는가? 빈곤의 악순환

이 되풀이 되어 온 빈곤 국가들 대부분이 왜 아직도 그 고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반면, 한반도는 근대사의 냉전의 세계적 구도에서 6.25동란과 같은 동족상쟁의 비극을 맛보았고, 사회적 격변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른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독교인으로 갖는 '하나님 의존 100%, 인간노력 100%'로써 지난 반세기를 달려온 믿음과 최선의 노력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국제화, 개방화로 인한 새로운 세계구도의 변화는 이 나라 청소년들에게 실로 중대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에 이 나라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도전이다. 더구나 이 시대를 사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갖는 그, 역할은 단순히 여러분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여! 현대 물질만능과 매스컴의 여과없는 퇴폐, 향락의 몰락, 나태와 방종 등의 풍토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엄습해 온다할지라도 빛과 소금된 시대적 소명자로서 그 역할이 오늘처럼 중요시 될 때가 없음을 깨닫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책임있는 세계인으로서의 힘찬 걸음을 내딛자!

☞ 성령 충만함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던 수련회 ☞

"임하소서"

채수풍 (대학부 1년)

마음의 준비가 없이 수련회에 임해서였는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처음엔 너무 이상하게 들렸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이 생소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 같다. 그 순간부터 내 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고, 설교 말씀이 점점 힘을 더해 갈수록 나는 나의 생활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으며, 그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외적인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주위의 기쁨에 찬 형제들의 모습은 내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느끼게 했다.

수련회가 다 마칠 때가 되어서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에 꼭 차오르는 기쁨과 함께 내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모든 걱정들과 날 감싸고 있었던 모든 비성경적인 삶들이 이제 내 마음에 계신 이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가 없애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이미 내 안에 계시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수련회였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 충만함의 감격으로 이 글을 쓴다. 할렐루야!

홍지민 (대학부 2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보혜사 성령, 은사를 주시는 분, 성령의 열매 등을 운운하였으면서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거나 그 분의 임재를 구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성령님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성령론에 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성령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거의 충격(?)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무릎으로 천국간다'는 말씀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감사하며 뜨겁게 기도한 것도 처음하는 경험으로 기억된다.

개혁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하여 이원론적인 사고 경향을 벗어나 세상을 변혁시키는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특강을 통한 도전도 가슴벅찬 것이었다.

그간의 구태의연했던 신앙생활의 껍질이 깨지는 듯한 경험은 나 뿐만이 아니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수련회였다.



☞ 조국을 생각하는 날, 청년의 결심 ☞

"손때 묻은 성경을 가보 삼으리라"

홍영조 (청년부)

구성원이 대부분 직장인들이어서 불가하게 공휴일인 3·1절을 이용해 수련회를 가졌다. 1년도 안된 청년부의 첫 수련회였다.

'청년의 때, 말씀을 따라 삼가자'라는 주제로 1박 2일간의 아쉬운 일정 가운데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삼가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회원들 각자가 실천 가능한 말씀생활의 구체적인 적용점을 모색하고 형제들과 나누는 방법을 탐구하기도 했다.

개회예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가르쳐 주셨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응답하는 법을 훈련했다. '한국 기독교의 성경 기독교적 성격(Bible Christianity)'이라는 제목 하에서 진행된 강의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수했는지를 보았다. 외국 선교사의 보고서에 기록된 바 우리 선조들의 손에 들리웠던 '손때묻고 닳은 성경'이 시사하는 의미를 새겨보며 한국교회의 성장을 주도해 온 힘의 근원을 알 수 있었다. 특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역사하신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며 역사관과 세계관을 새로이 하고 정의(正義)의 참된 의미를 말씀에 비추어 재조명해 봄으로써 의미깊은 3·1절을 보낼 수 있었다. 성경을 70번 완독하셨다신 선생님의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말씀대로 살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겨오신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젊은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것이었다. 아울러 기도도 다른 사람의 삶에 동참하는 것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된 감동의 시간이기도 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인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도 훌륭하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항상 향유할 수 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주셔서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어 세밀히 인도하시니 우리는 행복자임이 분명하다.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형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말씀을 통해 상고해 본 의미깊은 수련회를 마감하며 일생동안

말씀을 사랑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손때묻은 성경을 최고의 가보로 물려주자고 다짐했다.



3월 12일 (토)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집례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인 군복음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우리 교회는 올해도 3월 12일(토)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세례식을 후원한다. 150명의 사관생도가 수세할 이 세례식의 집례 및 설교는 이종운 목사가 하며, 부목사와 장로들도 참석하여 성찬식을 돕게 될 것이다. 군복음화는 곧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 됨을 생각할 때, 작년에 이은 이번 세례식 집례는 매우 뜻깊은 것이라 하겠다.



육사 세례식
광경

1993년 3월 13일



☞ 선교지 소식 - 우간다 ☜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골리(Goli)지역 사역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 진료소 사역에 분주한 중에도 직원들과 성경공부를 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용기를 얻습니다.
- 또한 골리 지역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우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 네비(Nebbi)교구 내의 다른 진료소들도 매월 한번씩 방문하여 진료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건강향상 뿐만 아니라 신앙성장을 위해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 전등불이 없어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중입니다.
- 「기도의 집」을 짓기 위해 기도 중이었는데 3Km 떨어진 곳에 적절한 장소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심신의 건강과 성경공부 및 양육과 훈련의 결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김정운 선교사 올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순례자」는 여러분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제보나 문의, 원고를 주실 분께서는 「순례자」 편집부를 지도하시는 장우희 목사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 517-7651-5 (교회) · 호출기 012-281-8958)

브니엘
하나님의 열매

영적 위기상황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위협과 갇은 박해 속에서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단과 사이비의 실체를 밝히기에 평생을 바친 어느 종교연구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생명을 걸고 외로운 싸움을 해 온 그가 끝내는 잘못된 신학상의 흥기에 희생된 것은 치안 부재의 현실도 한심하지만 정당한 비판까지 용납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독선적인 현주소를 알려주는 경종이라 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랄하고 비열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주저없이 사용하고 있다. 권위주의, 물량주의, 개인주의, 기복신앙이 팽배하여 암흑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극에 달한 영계의 전쟁을 직시하고 진리의 사수를 위해 영적 재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 교회가 흔들리면 가정과 국가도 불안해진다. 삼킬 것을 찾아 우는 사자처럼 날뛰는 사탄의 흥계를 물리치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편만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 천만 성도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진리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이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전을 허락하소서
2. 교사양성부를 통해 주님을 닮은 교사가 많이 양성되게 하옵소서
3. 주님의 남은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4.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갈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제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